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FEBRUARY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8



사진: 이행순 "플로리다의 일출"

골든클럽 회보 편집팀의 2022년 중점 계획

연초라 그런지 골든클럽 회보 칭찬을 자주 듣는다. 많이 듣는 comment는 “회보의 편집이 깔끔하다”, “읽을 만한 기사가 많다”, 또는 “어려운 시간임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간하였다” 등이다. 덕담이겠지만 그래도 편집팀이 한 해 열심히 일한 것에 약간의 긍지를 느낀다. 금년에도 회원들이 흥미롭게 읽는 좋은 회보를 발간하려 노력하겠다.

회보 편집의 근본 방향은 지난 해와 큰 차이는 없겠지만 몇 가지는 바꾸려 한다.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 속에서 온 사회가 위축되었듯이 회보에서도 코로나에 관한 기사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었다.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기사는 가급적 줄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회원들의 모습을 ‘회원 동정’과 ‘사진 갤러리’를 강화하여 생생하게 전하도록 애쓰겠다. 골든클럽 회보와 골든클럽 카페의 유대를 강화하여 회보의 강점(회원들의 original 원고, 읽기 쉬운, visual 구성, 등)을 지켜가며 약점(지면과 빈도의 한계, 클럽 내

부 source 초점, 등)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Zoom을 활용하여 회원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토픽 중 3개(예, 노년 건강 관리, 노년의 financial planning, 끊임 없는 학습과 창조) 정도 골라서 클럽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치하여 강의와 Q/A를 시행해 보려 한다.

회보 편집팀은 현재 7명(자동직인 골든클럽 회장, 상임고문, 사무총장 포함)의 편집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일이 많아 적어도 2명은 더 보완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전 위원이 모두 남성회원이라 아무래도 보는 관점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새 위원 2명은 모두 여성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큰 목표이다. 여성회원들 중에서 자원 아니면 추천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뉴스레터 편집장 윤현남✿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홍종만 • 사무총장 김정필 • 감사: 오순문

편집위원: 윤현남(편집장), 오순문, 금영천, 김병순, 정해민(상임고문)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 hong1945@gmail.com • 646-342-2667

신년교례회

지난 2년간 Pandemic 으로 신년교례회 행사가 무산되었으나, 차츰 규제와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예정대로 3월 26일(토) Atrium of Tenafly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신년교례회 기념품으로 서울에서 건강식품(오미자청 쉐)을 특별 주문하였으며, 음대 후배들의 '가곡의 밤' 순서에 이어 김광수 회원이 여흥 순서 사회를 맡아 즐겁고 흐뭇한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26일을 기억하시고 다른 행사와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교례회 일시: 2022년 3월 26일 4시~9시

4-5시: Registration & cocktail

5-6시: 총회, 회계 및 행사 보고

6-7시: Dinner

7-9시: 여흥 순서, 가곡의 밤 및 장기자랑

장소: Atrium of Tenafly, 174 Essex Dr, Tenafly, New Jersey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2022년 특별행사안내

2022년에는 골프, 하이킹, 피크닉 등 일상적인 연례 행사에 추가하여 Philadelphia Group Tour와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니, 예정 일정에 맞추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수립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목) Philadelphia Group Tour

여주영 회원의 주관으로, Covid 상황이 해소되는 대로 버스 편을 이용하여 오전에는 Barnes Museum을 방문하여 Vincent van Gogh, Paul Cezanne, Pablo Picasso 등 후기인상파들의 작품을 관람합니다. 오후에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던 개화운동의 선구자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여 그가 26년간 살았던 주택, 유품과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1951년 88세로 미국에서 병사할 때까지,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며 또는 '세계인의 선구자' 였는지도 모른다는 주진우 사학교수의 평가를 되새겨볼 예정입니다.



9월 18-27일 한국여행

손대홍 회원의 주관으로 10일 정도 한국을 방문, 단체관광 버스를 대절하여 골든클럽 분위기에 어울리는 경승지를 탐방하고, 편안한 Hotel에 묵으며 우수한 맛집을 둘러보면서 두고온 고향의 아름다움과 발전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각 회원의 여건에 따라 서울에 일찍 가거나 뉴욕에 늦게 올 수 있도록 '10일간의 여정'만 함께하는 것으로 여행 일정을 구체화시켜하면서 참가인원을 파악하겠습니다. ☼

Photo Gallery



1월 13일 뉴저지 한상에서 편집위원들을 격려하는 오찬모임



[김영천] Jacksonville에서 손녀와 함께



[김병순]직원들과 송년 만찬 모임



[정해민] Happy New Year



[홍중만] 1월 22일 Harriman Park에서



[오순문] 8살 쌍둥이 손자 생일을 축하하면서



플로리다 골프 트립 - 1/24 최희덕 플로리다 동창회장관에서 환영만찬



[김정필] 손녀 Lily가 처음 함께한 성탄절

2021년 12월의 서울풍경



눈이 내리는 명동 풍경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 허유선 (생활대 83)

한국에서 보냈던 겨울은 너무도 오래 전이라서, 얼마만큼 추위를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느껴보는 겨울은 뉴저지와 비슷한 추위입니다. 다만, 코로나와 델타 바이러스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더해져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는 얼마나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식당과 마켓 등을 가보면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의 K방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미세먼지의 공기 오염도에 따른 일기예보도 마음을 많이 우울하게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한국 방문시에는 항상 선글라스를 썼기에 눈이 따가운 것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마스크로 인해 자꾸 뿌연 안개가 끼는 선글라스를 쓸 수 없어서 미세먼지로 인해 눈이 아플 정도로 따갑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서울, 그리운 서울은 정말 많이 변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다녀 와야지하고 생각하였을 선배님에게는 갑자기 닥친 팬데믹으로 앞으로 과연 한국방문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2024년까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리운 한국은 이제 몸은 갈 수 없고, 마음과 생각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멀어질 듯합니다.

제가 가끔 선배님 여러분들을 뵈 때, 그냥 가볍게 여쭙어 보는 질문

중 하나가 “만일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셔서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미국과 한국 어디서 사실 것 같으세요?” 하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한다고 하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가 생각해 보는 저의 인생의 삶의 장소 선택에도 저 스스로 같은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이제 글로벌 시대로 들어서 온 세계가 손에 든 핸드폰 하나로 연결되는 때에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적응해야 하는 삶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감사의 확신과 자기 자신을 관계의 중심으로 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주변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겠지요. 팬데믹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했는데, 노년의 삶으로 역이민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웰빙으로 잘 누리면서 더 좋아지는 세계를 볼 수 있으리라 했던 생각들을 바꾸게 했네요.

2021년의 한국 풍경과 미국 풍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한국은 혼자 다니시는 시니어들을 볼 수가 없네요. 팬데믹 때문인지 아니면 효자들을 가진 력기한 분들만 다니시는 건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미국은 체력 좋은 튼튼한 사람들이 힘든 막일(?)을 하는 데 여기는 다 비슷한 체형의 같은 얼굴 (마스크 때문), 같은 동포들이 막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을 겸허하게 합니다.

그래도 2021 년의 12 월은 “끝까지 열심히! “구호를 외치며 2022년을 희망차게, 정성껏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통즉불통, 불통즉통

■ 김영천 (약대72, R.Ph., L.Ac.)

생활속에 흔히 쓰는 말 중에 ‘기(氣, Qi)’라는 한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기(氣)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로 인체의 기능, 활동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로 혈과 상보적 양과 음, 파동과 입자의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상태가 기쁘거나 평온하다는 뜻을 넘어, 기(氣)가 온몸에 잘 나눠져(分) 균형이 잡혀 가만히 있어도 느낌이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막히다’는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거나,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라는 의미로 한, 단어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에서의 기(氣)는 ‘기가 차다’, ‘기가 허하다’, ‘기력이 약하다’, ‘기가 세다’, ‘기통차다’, ‘기진맥진’, ‘기절하다’ 등 통상적인 우리말에서 자주 쓰입니다.

스(Hippocrates, 기원전 460-370)는 “가장 좋은 건강의 비결은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고, 또한 동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 편자(기원전 401-310)은 두한족열복불만(頭寒足熱腹不滿) 이라고 했습니다. 건강 하려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위장은 가득 채우지 말아야 온몸의 기혈의 흐름(수승화강, 水昇火降)이 잘 되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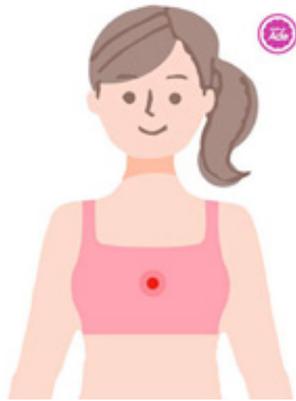
기혈의 좋은 순환을 위해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반신욕, 족욕도 가능). 따뜻한 음식 먹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지나친 긴장감과 공포감, 화병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소득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 상황도 경제의 기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의 기(景氣)가 잘 풀리고 충만해지는, 기통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단중혈 이완

단중혈 ▶ 가슴 정중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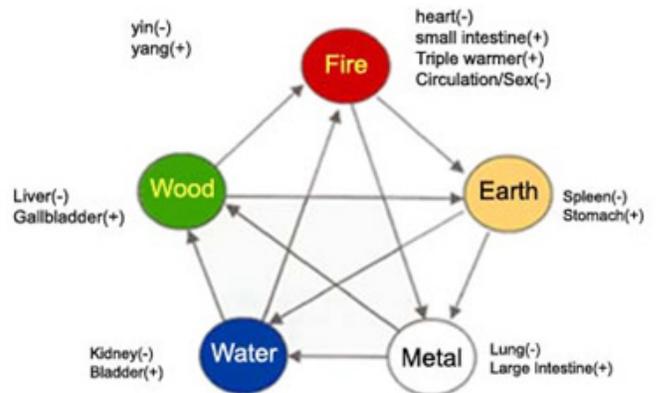
- ☑ 한방에서 울화병 진단 기준
- ☑ 스트레스 심할 때 자극하면 통증
- ☑ 기가 모였다 퍼지는 혈자리
- ☑ 지압 혹은 따뜻하게



우리 몸의 양쪽 젖가슴 정중앙에는 우리 몸에서 기가 가장 많이 머무르고 퍼지는 혈자리가 있는데 바로 단중혈(임맥, REN17 또는 전중혈) 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여기를 살짝만 눌러도 큰 통증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거나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구 기가 막혀”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건 이 혈을 자극하여 기를 소통시키기 위한 생리 현상입니다.

기의 순환이 정체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역류상태가 극심해지면 비정상적인 병리인자인 화火가 생성되어 갑갑함, 통증, 역울함, 분노감, 등이 복합된 화병이 됩니다. 극심한 화는 바람을 동반(기절초풍 氣絕招風)하여 반신불수 등의 풍증을 유발합니다.

기가 막히면 기를 뚫어 소통하게 해야 합니다.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 이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통증의 원인은 전부 달라도, 결국 잘 통하게 도와주면 아프지 않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명의 히포크라테



오행

코로나 염려증

■ 여주영 (명예회원)

코로나19로 인해 단순 감기 증상인데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요즘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감기 증세에도 스스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코로나에 대한 염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코로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심기증(Hypochondria,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건강 염려증은 말 그대로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병으로, 정신과 질환에도 정식 등록돼 있다고 한다. 무슨 일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 생기는 염려 증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6개월이 넘는 상태다.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불안장애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질병으로, 실제 COVID19에 의한 질환보다 더 큰 불안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무조건 강박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한 신체 증상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건강염려증 환자는 보통 노년의 세대가 많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건강 이상 신호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로 아무래도 건강문제에 예민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딱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불안하면 소위 '스트레스성 건강 염려증'에 불과하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안 장애환자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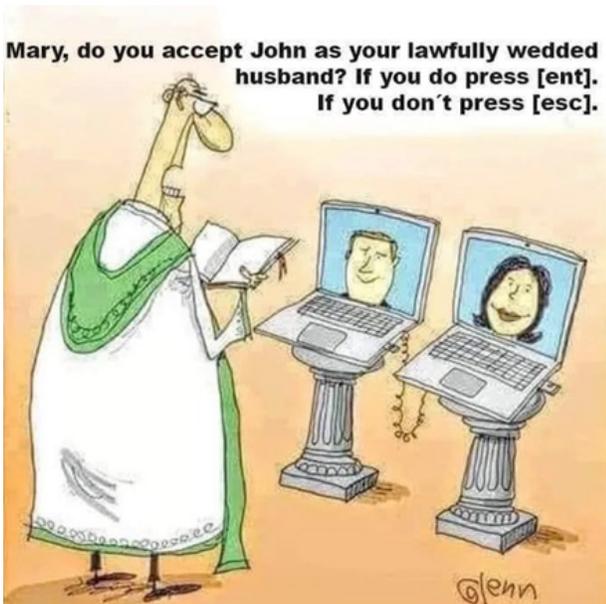
만약 부부가 창문을 열고 같이 잠을 잤을 때 이불을 혼자만 덮고 잔 아내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이불을 빼앗긴 남편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 경우, 정말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면 부부 모두 감염됐어야 하지 않을까? 또 한 명은 에어컨을 세게 켜 놓고 있다

가 콧물과 재채기가 심하게 나서 코로나 양성이었다고 하고, 옆방에 선풍기를 틀어 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던 사람은 멀쩡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냉방병'이다.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때는 바이러스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겨울에도 두껍게 옷을 입고 특히 목을 잘 감싼 사람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체온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내 면역체계가 기침, 콧물 등을 통해 나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신체의 당연한 현상이다.

1917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5,0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최초 감염자들은 스페인이 아니라 미군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과 코, 귀, 입에서 피를 쏟아냈다고 한다. 발병 초기에 보스턴의 한 의료팀은 스페인 독감의 강력한 전염성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을 중증 스페인독감 환자와 대화하면서 악수도 하게 했지만 반드시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 염려증은 몸이 아픈 증상보다 불안의 고통이 더 큰 병이다. 다시 말해 질병에 갇혀 사는 삶인 것이다. 어느 정도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 염려증 증상이 심각해지면 몸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강박적 행동으로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해친다는 문제가 있다. 건강염려증 환자의 경우, 환자 스스로 건강 염려증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혹자가 마음속에 코로나가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지나친 건강 염려증에 걸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영양 개선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상태는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한다. 이걸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죽해 감기 예방법에 상기도를 보호하는 목도리를 착용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을까? *



Rita Moreno's "AMERICA"

-- West Side Story

■ 정도현 (공대 57)

West Side Story is an American musical conceived by Jerome Robbins with music by Leo Bernstein, lyrics by Stephen Sondheim. The story is a contemporary American version of Shakespeare's Romeo & Juliet with the background of 1950s Upper West Side of Manhattan -- then a multi-racial blue-collar neighborhood. While turf wars were going on between 2 teenage gang members, the Jets (White gang) and the Sharks (Puerto Rican gang), a love affair develops between the rival gang members. Tony the former leader of the Jets falls in love with Maria, sister of Bernardo, the leader of Sharks. Just like Romeo and Juliet the whole thing ends with tragedy.

West Side Story debuted on Broadway in 1957 and 1961 adapted into a movie, co-directed by Robbins and Robert Wise with Sondheim Lyric and Bernstein Music. Robbins also did electrifying choreography. The movie version became an instant classic with enthusiastic reactions from moviegoers as well as movie critics. There were many great dance scenes and beautiful songs such as "Maria", "Somewhere", "Tonight", "I Feel Pretty" and many more. But the best part of the West Side Story is the song & dance routine of "America", performed by the Sharks gang and their girlfriends led by Anita, girlfriend of gang leader Bernardo, performed by the incomparable Rita Moreno. Every time,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see this piece, it puts a smile on my face -- "A Pure Joy", just like Gene Kelly's title number "Singing in the Rain".

Rita Moreno won the well-deserved Oscar in this movie, the first for a Latino actress. She steals the whole movie with this performance -- Perfect. This song and dance piece "America" shows the triumph of the spirit over the obstacles often faced by immigrants. I consider it the Anthem for all immigrants in America. West Side Story was nominated for 11 Hollywood's Academy Awards and won 10 Oscars, the most for musical.

There were several Broadway revivals. Recently, after 60 years, 2nd movie adaptation was produced. This 2021 movie version was directed by Steven Spielberg with choreographer Justin Peck. I saw the 2021 version with a particular interest of how he would handle the iconic "America" piece. Most of the song and dance pieces in



2021 version were as good or even better than the 1961 original version with more diversified authentic casting. But when it came to the piece "America", he and choreographer Justin Peck took a subdued approach. It looks like they did not attempt to replicate Robbins/Moreno original. I think they did a right thing. The original version was so good that whatever they do, it would've looked like a poor imitation.

When some movie scenes are so good and authentic, you cannot imitate. Can you imagine anyone other than Humphrey Bogart can deliver the words in the movie Casablanca, "I am looking at you kid"? It would seem so corny. Or, can you replicate the parting shot by Clark Gable at the end of the movie GWTW,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Spielberg made a small change in the script in 2021 version to pay tribute to Ms. Moreno. She plays drug store owner Jets gang leader Tony worked for. The owner in the original script was an old man. She is over 90 now, still looks hot today as she was in 1961, but more graceful and elegant ---- "God Bless Her." ✨



Ms. Moreno

회원 명단 (110명 / 2022-1-20)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오인석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우규환	이홍빈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손기호	유무영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선구	임호순	최학주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정도현	추재욱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윤현남	정수일	한영수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상무	조달훈/	한웅오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준	조승자	한대진/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홍선경	김정울	송웅길/	이대영	조상근	허용웅
권영대	김창수	송현자	이범선	주상선	홍사만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수호	진봉일	홍정표
금영천	김한중	신진식	이용대	천병수/	홍지복
김광수	김현중	신응남	이전구	천종화	홍종만/
김광현	노용면	양인회	이종대	최구진	홍예경
김동건	민준기	오순문	이종석	최병우	
김문경	박기환	오용호	이준행	최수용	
김문연	최숙희	오유섭	이준희	최순채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1-20)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정기총회)-Atrium of Tenafly
4월	4월 14일(수)	Hiking - Greenwood Lake
	4월 21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5월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 손대홍 회원 뒷뜰
6월	6월 9일(목)	Golf Outing
	6월 23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7월 14일(목)	Golf Outing
	7월 16일(토)	컴퓨터 연구원 피크닉
	7월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8월	8월 11일(목)	Golf Outing
9월	9월 15일(목)	Golf Outing
	9월 18-30일	한국방문여행
	9월 24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정기총회및 Picnic
10월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3월	3월25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29명 / \$2900/ 2022-1-20)

강교숙	박희병	이행순	홍종만
강에드	손경택	임호순	홍예경
권정덕	송웅길	오용호	홍지복
계동휘	송현자	이대영	최순채
김동건	송학린	이종대	최준희
김상만	신진식	정해민	
김창수	이용대	한웅오	
민준기	이전구	홍선경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12명 / \$5800 /2022-1-20)

강에드 300	홍종만 500	임호순 300
권정덕 200	오용호 300	정해민 500
송학린 1000	이전구 1000	
손경택 1000	이종대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6명 / \$1,200 /2022-1-20)

남종현	금영천	김승호	김한중	윤종숙	이상무
-----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2-11-20)

이준행 20,000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익성(상대53) 한영수(의대61)
- 김정필(공대71)
- 김창수(약대64)
- 김현중(공대63)
- 이종석(상대57)
- 고애자(사대58)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